

한국출판편집자상

Korean Publishing
Editor Award

2024
제3회

7. 제2회 수상자

대상 금상 금상 특별상 특별상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6. 제1회 수상자

대상 금상 금상
이승우 · 이경아 · 김세원

5. 수상자

대상 금상 금상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공로상 특별상 특별상 특별상
곽진희 · 시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승우

3.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2.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1.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Contents

1. 재단 소개	[01]
2. 인사말	[02]
3. 심사총평	[03]
4. 심사위원의 말	[07]
5. 수상자	[10]
6. 제1회 수상자	[26]
7. 제2회 수상자	[27]

1. 재단 소개

재단 소개 · 출판진흥사업 · 재단 연혁

재단 소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우리나라 출판문화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1969년 7월 7일 (사)한국출판금고로 출범하여 2002년 (재)한국출판문화진흥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4년 현재까지 55년간 지속 사업 중인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입니다.


출판진흥사업

- 1. 출판자금융자 사업(출판사 대상)
- 2.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직원 대상)
- 3. 단기출판자금융자(어음할인) 사업
- 4. 출판유통현대화융자 사업
- 5.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선정·보급 사업
- 6. 한국출판편집자상 사업
- 7. 출판계 연구소 지원사업
- 8. 출판계 단체지원사업

[01]

재단 연혁

- 1969. 07. 07. 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창립(초대 민유동 이사장 취임)
- 1972. 09. 중앙도서전시관 운영(1988년 12월까지 운영)
- 1974. 04. 출판자금융자 사업 개시
- 1985. 12. 24.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 설립(초대 정진숙 이사장 취임)
- 2002. 11. 28. 재단법인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1. 03. 제6대 김종수 이사장 취임
- 2022. 11. 24.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 2023. 11. 23. 제2회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 개최
- 2024. 03. 제7대 김철미 이사장 취임

2.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이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네요.”	
	이번에 출판편집자상 심사를 마치고 한 심사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권의 훌륭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필자 개인의 노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글에 또 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편집자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편집자는 단순히 원고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번역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여, 작품의 원래의 미와 감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독자의 취향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필자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작품이 보다 넓은 독자층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사위원의 위의 말씀은 편집자들의 능력과 노력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어떠한 책도 편집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편집자의 노고는 책이 출간되는 동시에 잊혀지곤 합니다. 더불어 편집자의 능력과 기여도 뒤로 숨겨집니다. 출판계의 여러 상도 주로 필자나 발행인을 위한 것이지 편집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출판편집자상이 유일합니다. 출판편집자상은 편집자의 전문성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출판계에서 편집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편집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은 편집자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출판의 위상을 크게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편집자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주목받아야 합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출판편집자상은 이러한 편집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 출판의 발전과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상이 편집자들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의 원고를 평면에서 일으켜세워 건축물로 만들기까지 묵묵히 수고하시는 편집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편집자들에게 큰 박수를 전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김철미		

3. 심사총평	수상자 선정 결과 · 수상자별 선정 이유
<p>해마다 시행하는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올해 3회가 되었다. 제1회 3명, 제2회 5명에 불과했던 수상자가 금년에는 8명으로 늘어났고, 그 분야도 학술, 교양, 종교, 사전, 대학 출판, 아동 등의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는 후보자 자격을 1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한 편집자로 바꾸었는데, 이는 근무 연수보다는 실적을 중시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대상자를 찾기 위함이었다.</p> <p>심사의 기준은 예년처럼 다음 세 가지로 정하였다. 첫째, 편집관이 뚜렷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람. 둘째, 출판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치 있고 오래 읽히는 책을 기획·편집한 사람. 셋째, 제출된 출판물에 대한 평가.</p> <p>심사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 대상자로 올라온 28명 후보자들의 활동 내용과 실적물 및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살피고 의견을 나누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하여 대상 1명, 금상 2명, 공로상 1명, 특별상 4명이 정해졌다. 출판편집자 공로상은 올해 처음 추가된 부문인데, 출판계와 우리 사회에 끼친 공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지난해 1명이었던 특별상 수상자가 올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p> <p>수상자 선정 결과와 수상자별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수상자별 선정 이유</p> <p>대상 수상자 김선정</p> <p>수상자는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27년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전념함으로써 학술 출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학교 교실에서 책 읽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체험담을 기록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를 펴냄으로써, 학교의 독서교육에 크게 공헌했다. 이 책은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배움을 주고받는 뜨거운 공감과 성찰의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을 주축으로 책 읽기 수업이 확장되어, 이후 교육부에서 정식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p> <p>수백 종의 책들을 기획·편집한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물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아우르는 과감한 발상으로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극서의 리스본까지, 3년 동안 무려 100개 나라, 1,000개 도시를 주유한 대장정의 기록인 『유라시아 견문 1.2.3』(이병한, 2016~2019), 세계적인 전설의 밴드 명반, 한국의 희귀 앨범 등에 관한 2,000여 컷의 사진과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편집 디자인 과정을 거쳐 탄생하여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자부하는 『라이선스LP 연대기』, 수백개의 지도와 그래픽을 통해 러시아의 과거-현재-미래를 짚어 보며, 역사와 시사와 지정학을 아우르는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등이 있다.</p> <p>수상자는 출판편집자로서 “단어 하나, 심포 하나, 행갈이 한 줄 한 줄에 대해서도 관심과 의문을 품는 독자를 상대하는 일은 한편으로는 기쁨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숨 막히는 긴장”이라고 밝히면서도 평생 편집자로 살아온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 “인문 도서들은 많이 팔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오래가고, 잊힌 듯하지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에 제 정성을 담고, 제 이름을 새겨 넣는 일은 기쁨을 넘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라고.</p>
<p>수상자 선정 결과</p> <p>대 상 김선정</p> <p>금 상 김민기</p> <p>금 상 김소영</p> <p>공로상 박진희</p> <p>특별상 사기순</p> <p>특별상 김장성</p> <p>특별상 박영신</p> <p>특별상 박혜진</p>	

금상 수상자 | 김민기

수상자는 1990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34년간 넥스스, 웅진씽크빅, 휴머니스트출판그룹 등의 기획 편집자 등을 거쳐 현재 도서출판 길벗의 실용서사업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수상자는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실용서를 꾸준히 기획함으로써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로는 ‘자기만의 방’ 시리즈의 첫 책인 일인생활자를 위한 집수리 안내서 『안 부르고 혼자 고침』(완주숙녀회·이보현 지음), 지식 없이도 그림을 깊이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림 감상 실용서 『우리 각자의 미술관』(최혜진 지음), 원서에서 중요한 30장면을 골라 담아, 원서 읽기의 부담을 줄이면서 작품을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영어를 읽는 30일 : 작은 아씨들』 등이 있다.

수상자가 수십 년 동안 실용서 기획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었다. 수상자는 그러한 자세를 이렇게 말한다. “출판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고, 더듬더듬 일하며 책을 만드는 동안 세상은 거침없는 속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재’의 사람들이 욕망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기획하여 내놓는 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것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상자가 일하며 배운 것들을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고객’과 ‘컨셉’이라고 한다. 수상자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랜 기간 생명력을 가진 스테디셀러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실천해왔다.

금상 수상자 | 김소영

수상자는 2009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15년간 고전, 시집, 그림책, 도감, 국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기획·편집하며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기획·편집 출판물은 조만간 멸종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 생물종을 기록한 세밀화 도감 『정부희 곤충

기』 시리즈(1~6권), 2,600여 개의 올림말로 아이들에게 국어 바로쓰기의 핵심을 알려주는 사전인 『보리 국어·문법 바로쓰기 사전』, 속담의 유래, 속담에서 비유하는 동식물과 사물 관련 이야기거리 등을 담아 그 분량이 1,304쪽에 이르는 『보리 속담 사전』 등이다.

이처럼 사전 편집에 힘을 기울인 수상자는 “사전 한 권을 엮는 일은 여럿이 발을 묶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초반, 중반, 후반부에 그리고 수시로 고비가 오는데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완주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상자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종이책 출판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드는 출판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수상자 자신이 기획·편집한 책들이 바로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고 자부한다.

“종이책에 담긴 내용의 가치와 책 자체의 물성을 사랑’하는 수
상자는 “오자가 있는 책,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책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늘도 자료를 찾고 또 찾고, 교정지를 보고 또 보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로상 수상자 | **곽진희**

수장자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편집자로 38년간 근무하며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930여 종에 이르는 도서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대학 출판문화 향상에 기여해왔다.

또한, 수상자는 한국·일본 대학 출판부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로 주제 발표를 하는 등 국제교류에 앞장섰다. 아울러, 해외 출판인과의 국제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해외 대학과 우수한 대학도서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국 출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수상자의 대표적 편집출판물은 300여 명의 전문 집필진으로 구성되어 2,0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에 1,500여 개의 표제어를 집대성한 한국 최초의 『역사용어사전』, 고령화사회에 시니어들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계획하는 데 도움을

[04]

주교와 펴낸 ‘제3기 인생 길라잡이 시리즈’ 『새로 시작하는 제3기 인생』 외 12종,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에게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한 한국어 교재 『사랑해요 한국어』(전12권) 등이 있다.

최근 수상자는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문 지식과 교양 지식을 인터넷 공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한국학 관련 도서와 한국어 교재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상 수상자 | 사기순

수상자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월간 〈현대불교〉, 불광출판사 등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민족사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자는 36년 동안 불교학, 명상, 순례기,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400여 종의 책을 기획·편집함으로써 우리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로는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래 현재까지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 음식』,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도표로 읽는 명상입문』, 『인도 네팔 순례기』, 『불교의 기원』 등이 있다. 수상자는 이처럼 전문서적들을 편집한 경험을 토대로 편집자는 전문성을 갖고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수상자는 “끝없이 공부하고 인내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편집자의 삶은 수행자의 삶과 다를 바 없다”고 고백하며, 필자와 편집자의 관계는 임신부와 산부인과 의사의 관계와 같다고 비유한다. 아이의 탄생을 도와주는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성을 지녀야 하듯이, 서적의 탄생을 주도하는 편집자도 “필자를 리드할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깊은 공감력과 소통 능력이 있고, 필자가 신뢰할 만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을 때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닌 수상자는 “좋아하는 책을 만든다는 행복감, 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보람”을 느끼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편집자”라고 자부한다.

[05]

특별상 수상자 | 김장성

수상자는 1991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33년 동안 다양한 그림책들을 기획·편집해 왔다. 수상자가 편집한 그림책들은 한국어린이도서상, 볼로냐 라가치상 등 국내외의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의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 크게 기여해왔다.

또한, 수상자는 편집자와 그림책 작가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일러스트레이션학교와 디자인대학원에서 그림책 창작론을 강의하며 그림책 작가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크게 공헌해왔다. 그가 현재 그림책 전문 출판사인 ‘이야기꽃’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가르침과 실천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은 2006년 한국어린이도서상을 받은 『설빔』,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 제63회 한국출판문화상과 제1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받은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2015년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 및 2016년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스웨덴 최고의 번역서에 선정된 그림책 『수영장』 등이다.

수상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많이 펴냈지만,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실현하는 품격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출판인들과 작가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오늘 우리의 그림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중견을 넘어선 수상자는 오늘도 그림책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일을 출판편집인으로서의 사명으로 삼고 노력 중이다.

특별상 수상자 | 박영신

수상자는 2002년 출판계에 입문한 이래 그린비, 창비, 문학동네 등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고, 현재 북복서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철학, 역사, 문학, 천문학, 만화,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 편집출판물은 철학 연구서인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병권 지음), 역사가의 자서전으로 만해문학상을 받은 『역사가의 시간』(강만길

지음), 『여행의 이유』(김영하 지음),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지음) 등이 있다.

수상자는 편집자의 역할이 “세상의 문장들 속에서 의미를 길어 올리는 일”이라고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작가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어려운 학술서를 독자들이 좀 더 편안히 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매력을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왜 내가 이 원고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편집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수상자는 출판시장이 좁아지고 독자의 수가 줄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출판의 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출판의 풍성한 미래를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다”는 수상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특별상 수상자 | 박혜진

13년의 출판편집 경력을 지닌 수상자는 현재 민음사 편집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소설, 희곡, 시, 논픽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서적들을 기획·편집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과 출판문화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수상자의 대표적인 편집출판물로는 조남주 소설 『82년생 김지영』, 김혜진 소설 『딸에 대하여』, 이혁진 소설 『사랑의 이해』, 『한국 여성문학 선집』(전7권) 등이 있다.

수상자는 “문학 편집자는 다른 분야의 편집자에 비해, 수동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인식을 깨고 편집자의 역할을 확장시켜왔다”고 자부한다. 즉 그는 조남주, 김혜진, 이혁진 등 예술적 가치와 독자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작가들을 자신만의 감식안으로 발견하고, 그 가치를 독자친화적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문학 편집자의 역할을 넓혀왔다.

또한, 수상자의 문학 편집관은 뚜렷하다. 즉, 작가와 독자를 발굴하는 문학 편집자에서 더 나아가, 시대의 한계에 도전하는 문학 편집자, 문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문학 편집자라는 신념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내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거나 시대의 한계를 증언하는 여성문학 작품들을 선별한 『한국 여성문학 선집』 편집이 시대의 한

계를 극복해낸 시도이고, 장강명의 논픽션 『당선, 합격, 계급』, 김수현의 『개미는 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가』, 강덕위의 『밀레니얼의 마음』 등은 문학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확장해낸 사례이다.

이처럼 출판계가 어렵다고 하는 최근에도 출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며 창의적인 편집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여덟 분을 사회에 알리게 된 것은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이 거둔 소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출판편집자상 제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06]

[07]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승우

부길만 심사위원

올해에도 예년처럼 한국출판편집자상 시상식이 열린다. 벌써 3회가 되었다. 심사에 참가하며 이제는 한국출판편집자상이 제 궤도에 들어섰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대상 후보자들의 수준이나 제출된 출판물들의 수준이 한결같이 뛰어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야 할 후보자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도 다양해졌다. 반가운 일이다. 그래서 수상자를 8인으로 확대한 것은 당연한 귀결 같았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출판편집자상 공모 자격을 편집 경력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인 것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심사 중에 나온 소중한 성과와 자료들을 보며, 한 국가의 문화산업과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출판편집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 출판학계를 대표하는 학자. 한국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원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외국어대 독어과를 졸업한 이후 영국 셀리오크 대학을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서 출판잡지를 전공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는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 동원대학교 광고편집과 교수, 경희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강사,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이사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 연구』, 『책의 역사』, 『출판산업 발전과 독서진흥』, 『한국 출판의 흐름과 과제』, 『출판기획물의 세계사』, 『출판학의 미래』, 『한국 출판 역사』, 『지역사회의 책문화 살리기』, 『우리 책과 한국사 이야기』 등이 있다.

4. 심사위원의 말

부길만 · 한봉숙 · 이승우

한봉숙 심사위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출판계에도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벅찬 감정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점에서, 한국출판편집사상의 심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출판편집자상은 출판문화를 이끌어가는 편집기획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입니다.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 저 역시 편집자로서 뿌듯하면서도, 심사를 맡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를 거쳐, 이제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며 출판계 역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엮고, 닦고, 꿰매야 하는 편집자의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지금도 많은 편집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저자를 발굴하여 소통하고, 원고에 참신한 편집과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더하여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물성을 갖춘 책으로 만들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금의 출판계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출판문화를 발전시키고 K-컬처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판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책과 함께한 분들께 이 상이 조금이나마 격려와 위로가 되기 바라며, 앞으로 편집자 분들께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08]

도서출판 푸른사상사 대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 계간 『푸른사상』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역임. 함께 쓴 책으로 『문득, 로그인』, 『여자들의 여행 수다』, 『우리, 그곳에 가면』, 『그들과 함께 꿈꾸다』, 『여자들의 욕망엔 색이 있다』 등이 있다. 제32회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2018).

이승우 심사위원

제1회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정해령 선생님은 ‘한국출판편집자상’의 제정에 대해 무엇보다 편집자들의 역할과 사기를 진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무리 곱씹어 보더라도 이 상의 의미를 이처럼 간결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갈수록 위태로워져 가는 출판문화 산업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편집자의 역할과 위상은 더더욱 풍전등화의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편집자’ 역할 범위를 넘어 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홍보 능력까지 요구하는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노동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굳건하게 맡은 바 자리에서 ‘편집’ 업무를 중심으로 출판 전반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편집자이다. 즉 출판의 핵심은 바로 ‘편집’에 있는 것이다.

올해도 쟁쟁한 편집 역량을 갖춘 30여 명의 지원자 속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느라 부길만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심사위원들은 숙고와 토론을 이어갔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했기에 형평성의 원칙도 감안해 수상자를 선정하느라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수상하지 못한 분들도 모두 뛰어난 역량을 갖춘 편집자들임에 틀림없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있기에 우리 출판의 미래가 그나마 담보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상자를 비롯해 수상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과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09]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주)도서출판 한길사에 입사한 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3년 기획실 차장으로 퇴사했다. 이후 같은 해에 도서출판 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선정한 ‘올해의 출판인’ 편집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로도 있었다. 아울러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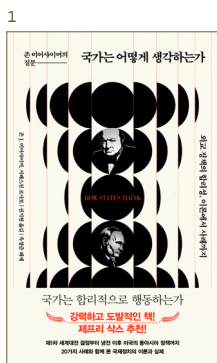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해 현재 서해문집 편집이사로 18년째 재직 중이다. 27년 동안 약 250여 종의 책을 기획·편집했다. 주요 출판 편집물로는 ‘유라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각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유라시아 견문』 3부작(이병한), 교육이란 무엇이며 배움이란 어떠한가 하는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실천해온 학교 교사들의 “배우는 사람, 교사” 시리즈를 비롯해 『기획된 가족』(조주은), 『싸우는 심리학』(김태형), 『사회학의 쓸모』(지그문트 바우만/노명우), 『그래픽노블 파리코뮌』(자크 타르디/홍세화),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김금숙), 『라이선스LP 연대기』(윤준호 외), 『송배 애도 적대』(천정환), 『좌파의 길』(낸시 프레이저/장석준),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펠핀 파팡 외), 『예루살렘의 역사』(뱅상 르미르),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존 미어샤이머 외), 『다시 쓰는 수학의 역사』(케이트 기타가와 외) 등이 있다.

대표작



- 1 국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다시 쓰는 수학의 역사
- 3 유라시아 견문 3부작
- 4 라이선스LP 연대기
- 5 한 학기 한 권 읽기
- 6 좌파의 길



수상자 소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예롭고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떨리고 어리둥절한 기분입니다. 출판계에 명성이 드높은 기획·편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많이 겸연쩍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그러나 어쩌면 이런 ‘보통’ 편집자의 수상이 많은 후배 편집자들에게는 용기를 북돋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나마 그 기쁨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처음 편집자 생활을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그동안 출판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책의 기획·편집의 과정이나 성격 자체도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출판 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그러한 큰 파도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헤쳐나오다 보니 어느덧 30년 가까운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돌이켜보니 편집자로서의 제 첫 꿈은 ‘숙련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만들 때마다 늘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역력이 쌓이면서도 실력은 그만큼 썩 늘지 않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왜 좀 더 맵시 있게 책을 만들지 못할까, 왜 좀 더 그럴듯한 기획안을 내놓지 못할까, 왜 책 만드는 일은 늘 처음 하는 일처럼 어렵고 능수능란해지지 못할까... 세상의 담론을 최전선에서 따라갈 만큼의 다독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려한 언변이나 사교성을 갖추지 못한 저로서는 숙련공의 꿈이야말로 유일한 탈출구인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장인 요리사가 그러하듯, 무념무상으로 쓱쓱 썰썰 칼질을 하고 나면 반듯하고 먹음직스러운 한 권의 책이 푹딱! 하고 완성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꽤 오랫동안 그 꿈을 잊고 살다가, 얼마 전해야 문득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렵 뜻이나마, 어느새 내가 숙련공 비스름한 그 무엇에 조금은 더 가까워져 있다는 실감이 확 다가왔습니다. 천재적인 탁월한 기획·편집자가 아니더라도, 숙련 노동자로서의 기쁨과 보람 또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슴 벅찬 일임을 깨닫습니다. 책

이라는 상품은 한 끼 식사 값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떤 책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역사를 바꿀놓을 정도로 큼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편집자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책이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어서, 희망과 실망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편집자의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기도 했습니다. 저와 결이 잘 맞는 출판사에서, 다양한 좋은 인문·사회 도서를 만들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인문·사회 도서는 많이 팔리지 않는 듯하면서도 오래 가고, 아무도 읽지 않는 듯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억하며, 잊힌 듯하지만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에 제 정성을 담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골라가며 언어를 배치하고 책의 내외적 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일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출판 편집자로 이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전체가 저의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든 수백 권의 책을 일일이 호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듯 간단하게 편집자로서의 처음과 현재를 복기해보며 다시금 편집자의 일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도와준 수많은 동료와 협업자, 그리고 출판사에 감사합니다. 특히 서해문집이라는 다이내믹한 배의 선장님이신 김홍식 대표님과, 편집자로서 삶의 롤모델이자 우리 배의 탁월한 항해사이신 이일규 선배님, 아울러 그 어떤 패밀리보다도 성실하고 활달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서해문집 동료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금상

김민기(金珉圻)



1990년 작은 출판사 도서출판 창 의 편집자로 출판 일을 시작했다. 외국어 공부를 돕는 학습실용서와 나답게 사는 일을 돕는 취미·건강·예술 실용서 등을 주로 기획·편집해왔으며, 2017년부터 휴머니스트출판사에서 ‘자기만의 방’ 시리즈를 기획, 운영했고, 2022년 도서출판 길벗에 실용서사업실 실장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2024년에는 독자들이 읽고 실행하는 일을 돕는 길벗의 새로운 브랜드 ‘리드앤두’를 론칭했다. 대표적인 기획·편집도서로 『나와의 워크숍』(김해리 지음), 『영어를 읽는 30일: 빨강머리 앤』(리터스텔라 지음), 『우리 각자의 미술관』(최혜진 지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김신지 지음), 『좋아하는 곳에 살고 있나요?』(최고요 지음), 『안 부르고 혼자 고침』(완주숙녀회.이보현 지음), 『작고 예쁜 그림 한 장』(민미레터 지음), 『이보영의 120분 영문법』(이보영 지음), 『EAR OF THE TOEIC』, 『EYE OF THE TOEIC』(이익훈 지음) 등과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휴식, 발마사지 30분』을 시작으로 한 ‘30분 시리즈’ 등이 있다.

대표작



[12]

[13]

오직 ‘출판편집자’만을 지목하여 시상하는 한국출판편집자상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실용서 기획·편집에 노력해온 편집자로서, 이 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다운 삶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용서 분야에 주는 상이 아닌가 싶어 특히 가슴이 뵈니다. 또한 35년차 편집자의 수상에는 오랫동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믿기에, 상을 주신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과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고무되고 힘이 납니다.

처음 단행본을 기획하고 편집하던 90년대 무렵, 저는 베스트셀러만을 좇는 편집자였습니다. 수십만 부가 예사로 나오는 시대였기에 더러 베스트셀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일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꾸준히 스테디셀러를 생산할 수 있는 실용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무엇을 왜 필요로 하는지 고객의 니즈가 비교적 명확한 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었기에 일을 하면서 배웠고, 이전까지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험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였습니다. 그 재미에 푹 빠져 일하는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하면 ‘고객’과 컨셉’입니다. 실용서 기획 전문가로 이름을 얻게 된 2000년대 초, 30분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실용서들과 어학학습서들을 쏟아내듯 출간하던 때에도 그 책들을 생명력을 가진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게 한 힘은 고객과 컨셉에서 나왔습니다. 책마다 지향하는 고객 인사이트를 명확히 하는 것, 가장 적합한 컨셉으로 고객의 필요와 욕망에 대답하고 그에 맞게 책으로 편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배운 기획방법론의 핵심입니다. 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기획수업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수상자 소감

오랫동안 고객 중심 출판을 지향해왔지만, 지금 기획하는 책의 고객이 누구인지 아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종종 틀립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누가 무엇을 왜 사는지 고민하고, 또 공부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위한 모든 것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수년 전 론칭했던 ‘자기만의 방’ 시리즈도 그런 공부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올해에는 ‘단지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독자를 돕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발상에서 실행 즉 Do를 모토로 세운 리드앤두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어렵지만, 2024년 현재 제가 고객에 대해 깨달은 한가지가 있다면 이제 ‘책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책이 아닌 것들이 더 편리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공부의 대상으로, 즐거운 취미로, 나만의 무기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 대신, 각자의 이유로 정말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합’합니다. 소설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이 더 쉽게 더 선명하게 정돈해준 지식을 좋아하고 거기 담긴 통찰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이제 책을 더 책답게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이유에 맞게, 더 책답게 편집된 책, 읽는 사람의 자부심이 되는 책.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까지 함께해주었고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덕분이 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후배님 동료님 작가님들이 마음을 담아 추천해주신 말씀들,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고맙습니다.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곽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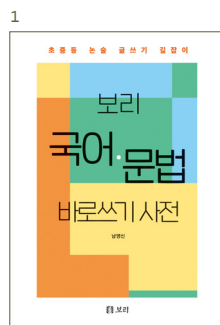
김소영(金昭暎)



대학원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에 2009년 9월 고전문학 편집자로 보리출판사에 입사하여 만 15년째 재직 중이다. 현재는 보리기획실 팀장으로서 사전류와 세밀화 도감, 곤충기 같은 중장기 기획물을 편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대표 편집 도서로는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남영신 엮음, 허정숙 삽화)과 이 책의 개정판 『보리 국어·문법 바로쓰기 사전』, 편집자의 관점으로 엮은 『보리 속담 사전』(2024)이 있다. 청소년판 『열하일기』, 세밀화로 그린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권혁도 글 그림), 동시집 『내가 미운 날』(오승강 시, 장경혜 그림), 『나는 못난이』(서정홍 시, 신가영 그림), 성인 시집 『밥 한 숟가락에 기대어』(서정홍 시, 최수연 사진), 『콩밭에서』(박형진 시), 『세밀화로 그린 보리 말동무 그림책』(6권), 세밀화로 그린 보리 큰도감 개정판 『곤충 도감』과 『나무 도감』,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곤충의 삶을 보여 주는 『정부희 곤충기』 시리즈 등을 편집하였다.

대표작



- 1 보리 국어문법 바로쓰기 사전
- 2 보리 속담 사전
- 3 곤충의 짝짓기
- 4 나무 도감
- 5 누에야 뽕잎 줄게 비단실 다오
- 6 만남1 열하일기



[14]

[15]

수상자 소감

편집자상이라니! 기대를 내려놓고 응모했는데 막상 상을 받게 되니 수줍으면서도 기쁘네요. 보리출판사에 입사하여 고전문학 편집자로서 첫발을 떼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듯 그림책, 시집, 글쓰기 책, 교육서, 도감과 곤충기 같은 자연 생태 관련 책까지 다양한 분야로 편집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인 다양한 경험들이 사전을 편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구나 싶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 준 도감과 곤충기

세밀화 도감과 곤충기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편집하는 책입니다. 70권이 넘는 도감과 곤충기를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고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장님, 거기 뭐 있어요? 오늘은 뭐 찍으세요?” 출퇴근길에, 때때로 산책하면서 돌레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편집할 때 본 생태 정보를 관찰하면서 확인합니다. 도감과 곤충기 편집은 작업 기간도 무척 길고, 여러 가지 편집 요소를 권마다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지만 조만간 멸종할지도 모를 우리나라 생물종을 기록하는 의미가 커서 편집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 줍니다.

편집자의 관점으로 『보리 속담 사전』을 엮기까지

지난 10여 년 사이에 『보리 국어·문법 바로쓰기 사전』(2023, 개정판)과 『보리 속담 사전』(2024)을 편집했습니다. 『보리 속담 사전』을 2013년에 먼저 기획했는데, 2019년부터 준비한 남영신 선생님의 『보리 초등 국어 바로쓰기 사전』(2021, 초판)이 먼저 출간되었습니다. 어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남영신 선생님께 의문 나는 것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했습니다. 이때 주고받은 질문지가 수백 장에 이릅니다. 열매도 때가 되어야 익듯이, 2013년부터 준비한 『보리 속담 사전』도 2024년 6월에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자료 수집, 표제어 입력, 뜻풀이 고증과 다듬기, 삽화 개발, 편집까지 제가 가진 모든 편집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책임입니다. 관용 표현 7300여 개를 담은 130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초고 마련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체제를 뒤집어엮고 새로 원고를 써 넣기를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교차 확인하고 다듬었습니다. 저자가 따로 없는 책, 편집자의 관점으로 엮은 책이 바로 이 속담 사전입니다.

사전 한 권을 만드는 일은 여러 사람이 발을 묶고 42.195킬로미터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수시로 고비가 찾아오는데 누구 하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완주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작가, 화가, 디자이너, 제작자, 영업자와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 종이책을 만들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AI가 다 알려 주는데 뭐 하러 힘들게 종이책을 만드냐고 합니다. 말은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면 어떤 생물종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보리출판사의 출판 정신 중 하나가 ‘나무 한 그루를 베어 낼 가치가 있는 책을 만들자’인데 저는 보리 사전과 세밀화 도감이 그 가치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책에 담긴 내용의 가치와 책 자체의 물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전과 도감을 만들다 보니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최신 정보 반영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며 편집하고 있습니다. 믿고 볼 수 있는 책, 오래 두고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 오자나 잘못된 정보가 없는 책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자료를 찾고 또 찾고, 교정지를 보고 또 봅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종이책에 담습니다.

편집자상 공모에 추천해 주신 유문숙 대표님과 김용란 이사님, 기획자문 윤구병 선생님, 오래 손발 맞춰 온 동료들, 절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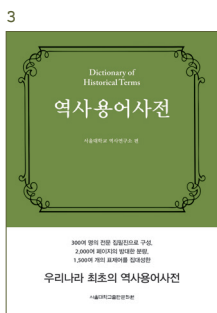
공로상 박진희(郭眞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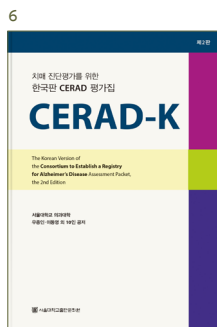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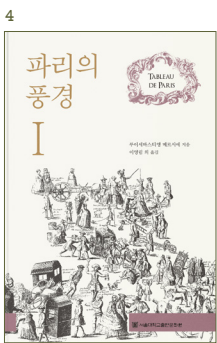
1986년 3월에 입사하여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 출판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동안 한국대학출판협회 자문의원을 맡아 대학출판이 성장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2013년 자랑스런 대학출판인상과 2018년 올해의 대학출판인상을, 그리고 2019년 책의 날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38년간 『역사용어사전』, 『사랑해요 한국어』(전 12권), 『서울대 한국어+』(전 24권), 『파리의 풍경』(전 6권), 『패권의 비밀』, 『꿈의 해석-프로이트』 등 고전 다수, 『한국사특강』, 『심리학개론』, 『글쓰기 시리즈』(전 5권), 『CERAD-K』, 『Health+ 시리즈』(전 14권) 등을 비롯하여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학술도서 및 교양도서와 교재 등을 기획, 출판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식백과 및 검색 기능을 통한 e-콘텐츠를 포털사와 제휴하여 배포하였고, 출판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전자책 제작을 활성화하는 등 출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작



- 1 사랑해요 한국어1
-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3년사
- 3 역사용어사전
- 4 파리의 풍경1
- 5 패권의 비밀
- 6 CERAD-K



[16]

[17]

지금도 기억 저편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출판문화원에 첫발을 내디뎠던 때가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백일장에 나가 온 좋게 몇 번의 수상을 하고 교지 편집을 담당했던 경험만으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면 행복하겠다는 막연한 동경심으로 시작된 저의 출판 입문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과 호기심으로 출판에 몸을 담근 지도 어느새 38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보니 출판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족적을 남겨야 선배로서 소명을 다했다고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당시 원장님이셨던 국문학자 정병설 교수님의 제안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3년사』란 도서를 출간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출판문화원사 출간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을 하신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출간 작업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73년이란 시간의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망실된 서류를 찾고 흩어진 기억들을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 끼워 나가면서 출간하기까지에는 예상대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망팔(望八)이 지났으니 73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있었을지는 먼지가 뿌영게 쌓인 빛바랜 서류 뭉치와 누런 원고 뭉치를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00자 원고지에 연필로 꺾꺾 눌러 쓴 어느 원로학자의 원고는 글쓴이의 학문적 고집이 읽힐 만큼 힘이 실려 있었으며, 살짝만 건드려도 부스러질 것 같은 직원의 신상조사카드는 당시 직원들의 담당 업무와 직위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을 손에 쥐던 날, 출판인으로서 한국대학출판사 최초로 지침서가 될 만한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기쁨으로 행복해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수상자 소감

오랜 시간 편집자로 몸담고 있으면서 편집자는 최초의 독자라는 사명감으로 저자의 의도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장을 다듬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면서 텍스트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고, 원고마다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와 겨냥하는 독자가 다르므로, 편집자는 그러한 저자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문장 한 줄 한 줄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교하게 읽어 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한 자루의 단단하고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 수십 수백 번의 담금질을 하듯이……

제가 ‘책은 우리 미래의 문화재’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최초로 대학출판의 획을 그은 이곳에서 38년이란 시간을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한 시간과 싸우며 집필을 하신 저자와 그 글을 다듬고 엮어내는 편집자, 그리고 서점에서 가장 먼저 독자와 마주하게 될 표지를 멋지게 분장시키는 디자이너, 그 외 마케터와 인쇄 및 제작을 담당하는 분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8년이란 긴 시간을 쉽 없이 숨차게 달려온 출판인으로서 앞으로도 학술출판의 중심에 서서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출간하는 모든 책이 미래의 문화재가 되어 우리의 후속세대에게 읽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 독자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출판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무탈하게 출판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순의 연세에도 살림을 살피주시는 어머니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현석, 재석 두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출판문화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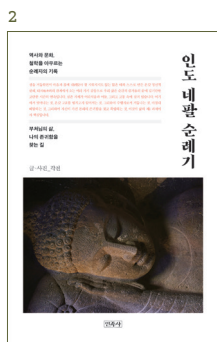
특별상

사기순(史基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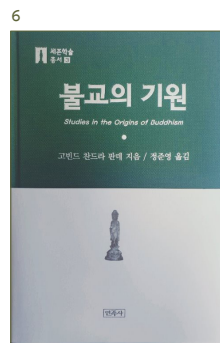


대전 출생,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1989년 월간 현대불교 기자로 있으면서 같은 잡지사에서 운영하는 도서출판 산방에서 편집 일을 배웠다. 1990년 월간 불광·불광출판사로 이직해서도 월간지와 단행본을 동시 진행, 2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등 수많은 스테디셀러를 기획 편집하였다. 2013년 도서출판 민족사에 주간으로 입사,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시리즈를 기획 편집, 세종도서 우수도서, 불출협 10선으로 선정되었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였다. 도표로 읽는 불교 시리즈와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등의 경전을 읽는 즐거움 시리즈와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린 지장기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그린 관음기도』, 『붓다수업』 등을 기획·편집, 불서를 통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대한출판협회 기획 편집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공들여 편집한 『인도 네팔 성지 순례』는 2021년 불출협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BTN불교티비 플랫폼의 잣나무 MC를 역임하였으며 공저로 『행복해지는 습관』 등이 있다.

대표작



- 1 자타카로 읽는 불교1
- 2 인도 네팔 순례기
- 3 붓다 수업
- 4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 5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 6 불교의 기원



수상자 소감

지난날을 돌아보니, 중학교 1학년 사춘기 때 내 인생을 바꾼 불교를 만났습니다. 불교 교리를 쉽게 담아놓은 책에 대한 갈증은 그때부터 싹틔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해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 자연스럽게 불교잡지 기자가 되었고, 불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만들어 오고 있으니 불연(佛緣) 덕분에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듯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편집자는 구슬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일, ‘사람 보배’를 만드는 일을 하는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필자와 소통하며 필자의 원고를 잘 다듬어서 독자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꿈꾸던 일,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오랫동안 해 왔을 뿐인데,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수여하는 제3회 출판편집자상(특별상)을 받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이 삶의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이 내 삶의 화두가 되었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서(佛書)를 만들어 온 삶에 대한 상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보람 있고 기쁨이 큼니다.

필자의 생각을 끌어내고, 독자와 소통하기 쉬운 아름다운 언어로 운문을 하는 등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공부하고 인내하며, 필자와 독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편집자의 삶은 수행자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자로서의 제 삶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특히 불교전문출판사에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가르침이 담긴 불서를 만드는 편집자여서 지난 36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복하

게 편집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첫 책을 만들 때부터 바로 지금 만드는 책에 이르기까지 책 만드는 모든 순간순간이 수행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편집 실무에 임할 때 독서삼매에 빠지듯 교정 교열 운문 삼매라고 해야 할까, 정말 평온하고 고요한 경지에 들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순간순간이 명상’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날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직업 중에서 좋아하는 책을 만든다는 행복감, 책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자긍심 충만한 편집자에게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특별상, 특별한 날개를 더 달아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18]

[19]

5.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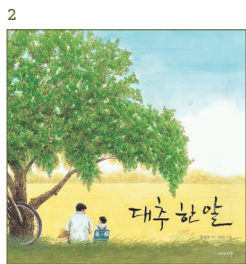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특별상 김장성(金長成)



1991년 두손미디어에서 출판편집일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사계절출판사에서, 이후 2012년에 창업한 이야기꽃에서 줄곧 그림책을 만들어 왔다. 독자적 예술 장르인 그림책이 아동문학의 하위장르로 오인되거나 ‘유년기 아동의 교육과 계몽을 위한 기획출판상품’ 정도로 여겨져 장르의식도 전문작가도 표현과 감상의 이론도 부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껴, 2002년부터 일러스트레이션교육공동체 힐스에서, 2003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그림책창작론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기획·편집 작업과 함께 작가 양성과 창작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2년부터는 그림책과 노래를 결합하는 ‘노래와 그림책’ 프로젝트를 기획·진행하여 장르의 확장과 통섭을 꾀하고 있다. 사계절출판사의 우리문화그림책 시리즈, 한중일공동기획 평화그림책 시리즈, 초등학생이보는그림책(현 디어그림책) 시리즈 등 여러 그림책 시리즈를 기획·편집하였고, 이야기꽃에서 현재까지 60여 종의 그림책을 만들어 펴냈다.

대표작



- 1 민들레는 민들레
- 2 대추 한 알
- 3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
- 4 돼지 이야기
- 5 수영장
- 6 이빨 사냥꾼



수상자 소감

자신을 낮출 만한 높이도 마음에 없는 말도 없는 사람인지라, 마음에 있는 겉손치 못한 말을 하겠습니다. 상이란 받는 자도 그럴 만해야겠지만 주는 자가 그럴 만해야 하는 것인데,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 주는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럴 리야 만무하겠지만, 대통령이나 총리가 주는 상이었다면 수상소감을 쓰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편으로 상이란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거나 남들이 천거해서 받아야 영광스러운 것일 텐데, 자천으로 떼를 써서 받게 된 것이어서 다소 민망하기도 합니다. 노벨상처럼 시상자가 알아서 상 받을 사람을 찾아 시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러기가 어려울 만큼 출판편집자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임을 잘 압니다. 책과 저자와 출판사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숨으려 들면 얼마든지 숨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지언정 숨지 않고 자신이 만든 책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편집자들, 눈에 띄지 않는 문장부호 하나 쓰는 일에도 부끄럽지 않으려 안간힘쓰는 편집자들이 있기에 우리 출판문화의 수준이 이만하고, 인류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보다 더 알팍하거나 각박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편집일을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거의 그림책만 만들어 왔습니다. 문헌서나 인문서, 실용서, 학술서 등에 비겨 그림책은 출판편집의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시장 규모도 작고 장르인식도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전체 인구의 99% 이상이 그림책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을 마련한 재단이나 심사하신 분들조차도 ‘그림책? 애들이나 보는 쉬운 책 아냐?’라거나 ‘아동문학의 한 장르지.’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림책은 ‘언어와 이미지가 결합한 장면을 책장을 넘김으로써 전개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책 형식의 독자적 미디어이자 예술작품이자 출판상품’입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표현과 감상,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찰이 시작되며 창작자와 편집자의 고민과 노력도 비롯됩니다. 다른 분야보

다 더하다고 우길 수는 없지만 덜하지도 않은 고민과 노력이지요. 이런 생각을 하며 출판편집자상의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니 그림책 편집자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더군요. 그림책 만드는 일이 작은 빛이라도 받게 된 듯하여 반갑습니다. 다만, ‘일반’이 아닌 ‘특별’상이라 쪼끔 서운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림책 만드는 동료와 후배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이 돌아가게 되기를, 그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상해지고 인간이 아무리 괴상해져도,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이 줄고 줄고 또 줄어든대도 책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비즈니스로만 생각한다면, 수익성도 성장가능성도 뻔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건 바보 머저리 짓이겠지만, 출판이란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책이란 억지로라도 읽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조건이니 어떻게든 책 만드는 일을 꾸역꾸역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디지털시대에 굶어 죽기 딱 알맞겠군.’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책은 책(冊)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書), 곧 ‘정제된 콘텐츠’이지요. 디지털시대에 콘텐츠를 담아 전하는 그릇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콘텐츠의 소비도 더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콘텐츠냐 하는 것이지요. 정제된 콘텐츠, 그러나 느리게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어떻게 빠르디빠른 이 시대의 미디어 디바이스와 조화시키느냐,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날 출판인들의 큰 숙제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책과 서가 분리되지 않는 그림책의 경우는 숙제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든 풀어보려 애씁니다. 거기에 이 가난하고 따뜻하고 소중한 상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련해 주신 재단과 동료 출판인들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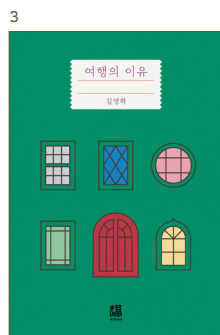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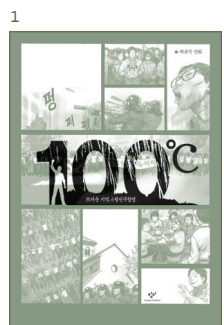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특별상 박영신(朴英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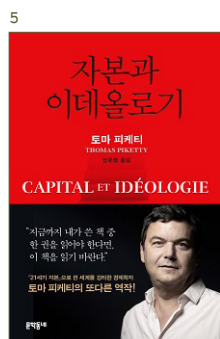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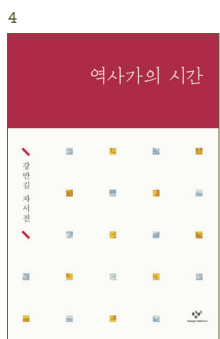


처음 만든 책 고병권 선생님의 『니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은 남몰래 숨겨온 저만의 자부심입니다. 최규석 작가님의 『100도씨』를 편집했을 때의 보람, 고 강만길 선생님의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을 편집하면서 한국 현대사 속 역사학자의 삶을 풍부하게 담아내고자 고민했던 밤들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문유석 작가님의 『개인주의자 선언』이 수직적 조직문화에 대해 일갈하며 독자들의 지지를 얻었을 때,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가 출간된 해 모든 서점에서 올해의책으로 선정되었을 때,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끝없이 원서 대조하며 편집의 고단함을 느꼈을 때,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의 기획안을 들고 천문학자 심채정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편집자로서 행복했습니다.

대표작



- 1 100도씨
- 2 개인주의자 선언
- 3 여행의 이유
- 4 역사가의 시간
- 5 자본과 이데올로기
- 6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



수상자 소감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로 줄곧 열떨었던 가운데, 편집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2002년 처음 그린비 출판사에 입사해, 지금은 논픽션으로 불리는 게 더 일반적이지만, 인문사회과학으로 분류되는 책을 편집한다는 것의 어려움과 보람, 의미를 어렵듯이 배웠습니다. 한 해에 평균적으로 다섯 권을 편집한다고 할 때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믿기지 않지만, 꽤나 흐른 시간만큼 약 100종을 책임편집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독자와 평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책도 있지만, 차가운 외면을 받았던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제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책이었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한 권의 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때까지, 원고 속 문장이 지닌 의미와 그것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작가가 왜 썼을지 그리고 독자들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생각하며 텍스트를 파고들어가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행복’은 순전한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책 한 권이 독자들에게 일말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문장들 안에서 편집자는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편집자의 일에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 그 남모를 고민이 바탕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고민의 시간들에 대해 그간 수고했다는 다독임과도 같은 상을 받게 되어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책은 아시다시피 편집자 한 사람이 애를 쓴다고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부, 디자인팀, 마케팅팀, 제작부가 합심해야 그럴싸한 한 권이 탄생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유능한 선배배, 동료들과 의기투합해 일한다는 것의 짜릿함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고심 속에서 서로가 무심결에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멋진 결과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집자는 이 모두를 결합해 하나의 지성적 창조물을 탄생시키는 종합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러

하기에 완벽한 경지에는 당연히 이를 수 없고, 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도 하며, 결국엔 매번 좌절할 것입니다만, 그 과정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는 욕심을 지금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이책의 위기, 출판의 위기와 같은 말들은 제가 처음 편집자로 일했던 2002년부터 들어왔습니다. 어린 편집자일 때는 이런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사양산업’의 종사자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조사 하나에 민감해하는 이 섬세한 일이 과연 제 적성에 맞는지 걱정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편집한 책들이 늘어갈수록 불길한 소문들이 더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되는 일이 빈번해졌음에도 저의 걱정은 열어졌습니다. 읽는 행위가 가장 인간적인 행위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저 책 만드는 일의 보람을 널리 알려 한 사람이라도 더 책이라는 우주에 편입될 수 있도록 애쓰려 합니다.

현역 편집자로 오랜 시간 일해왔기에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묵묵히 원고와 씨름하며 세상에 내놓을 메시지의 파장을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문장에 감격하는 제 주변의 ‘책만 좋아하는 바보’들을 떠올립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 문제적이라 생각하는 책에 대해 끝없이 수다를 떠는, 멋진 편집을 감상하고는 질투하는, 자신이 만든 책에 대한 미미한 반응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괴로워하는 제 주변의 사랑스러운 편집자 동료들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들과 함께 편집자로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도 영광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수상자

김선정 · 김민기 · 김소영 · 박진희 · 사기순 · 김장성 · 박영신 · 박혜진

특별상

박혜진(朴惠眞)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민음사에 입사해 해외문학팀을 거쳐 한국문학팀 편집자로 재직 중이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2018년 젊은 평론가상, 2022년 현대문학상(평론),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24년 김종철시학상(평론)을 수상했다. 대표 작업 도서로 소설 『82년생 김지영』, 『한국이 싫어서』, 『딸에 대하여』, 『사랑의 이해』, 희곡 『1945』, 『한국 여성문학 선집』(전 7권) 등이 있으며, 문학잡지 《릿터》 책임 편집자로서 비문학시대의 문학 독자 확장에 도전하고 있다. 문학 이외에도 『당선, 합격, 계급: 문학상과 공채는 어떻게 좌절의 시스템이 되었나』, 『밀레니얼의 마음』, 『나의 영어 해방 일지: 딥엘, 챗GPT로 책 한 권 번역하기』 등 다양한 스타일의 도서를 기획, 새롭고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대중에게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비평집 『언더스토리』와 서평집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출간했다.

대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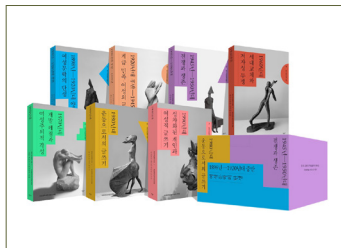
1



2



3



1 82년생 김지영

2 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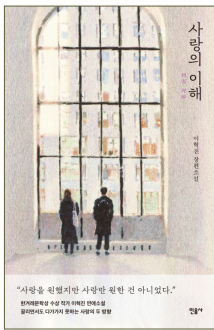
3 한국여성문학선집

4 사랑의 이해

5 한국이 싫어서

6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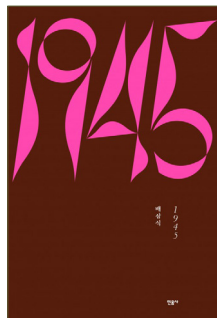
4



5



6



수상자 소감

‘대표 편집 도서’ 4종을 넣어 포장한 상자를 두 손에 들고 신사역 8번 출구 앞 허름한 상가 2층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어서인지 늘 그런 것인지 우체국에는 대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사천리로 등기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바지 주머니 안에 잡히는 것이 있어 꺼내 보니 뽑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우체국 대기표였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 독서대에 구겨진 대기표를 펴서 클립으로 꽂아 두었습니다. 대기표에는 커다랗게 그날의 날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10월 10일. 노벨문학상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14년 차 편집자입니다. 몇 권의 해외소설을 편집하기도 했으나 주로 한국 문학 분야의 도서를 만들었습니다. 문학책을 140종 가까이 편집했고 입사 이후 줄곧 잡지 발행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책도 쉽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편집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무엇이 문학과 무엇이 문학이 아닌지 판단하는 일 앞에서는 항상 처음인 것처럼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문학책을 편집하는 일은 언제나 짜릿하고 성찰적인 순간의 연속입니다. 작가의 공적인 최측근이 되어 나누는 비밀상적인 대화, 그 생각과 감각을 ‘책’으로 표현하기 위해 쏟는 고민과 협업의 시간,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무한하게 발견해 내는 독자라는 존재와의 만남…….

문학의 매력이 자유로운 상상력에 있다면, 문학 편집의 매력은 그 자유로움이 보다 완전하게, 보다 넓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에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는 작가들이 독자와 만나기 위해 지나야 하는 가장 정확한 통로이자 가장 멀리까지 뻗어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속을 늘 투명하게 비우고 있으려 합니다. 작가가 저라는 통로를 지나갈 때마다 온전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투명함은 내용이 없어서 가능한 투명이 아니라 내용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투명입니다. 다시 투명해질 수

있는 편집자야말로 새로운 작가를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편집자입니다. 이런 태도로 작품과 작가를 발견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출판편집자상 공고를 처음 봤을 땐 도전해 봐야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1, 2회 수상자인 선배 편집자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에 비하면 저의 그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이력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다 응모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모 기준이 15년에서 10년으로 낮아진 것에도 생각이 미쳤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모를 준비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제 편집자 인생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이 발표되며 세계인의 이목이 한국의 문학에 집중되던 그날, 사람들 마음에서 빛나고 있는 10월 10일은 제 마음속에서 조금 더 환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으로 인해 그날이 정말 제 삶의 새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뜻 있는 작가들과 그들의 문학이 세계 곳곳에서 읽힐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음사에서 만난 선후배에게 늘 깊은 영감과 자극을 받습니다. 한 선배는 제게 “대편집자가 되라”는 감당 못 할 말, 그러나 남몰래 품고 있는 꿈의 조각을 건네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선배는 “편집자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어느새 누군가가 같이 꿈꾸고 있다”는 말로 한때의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좌절로 울고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실수다발을 꺼내 보이며 위로해 준 선배도 있었습니다. 더할 수 없이 큰 사랑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영감과 자극을 주는 일원이자 동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독서대에는 구겨진 대기표가 깃발처럼 힘차게 주름져 있습니다. 깊이 정진하겠습니다.

6. 제1회 수상자

이승우 · 이정아 · 김세원

대상
이승우(李承雨)



1968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주)도서출판 한길사에 입사한 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3년 기획실 차장으로 퇴사했다. 이후 같은 해에 도서출판 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8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선정한 ‘올해의 출판인’ 편집 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7~21년까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로도 있었다. 아울러 제1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금상
이정아(李京兒)



1998년 2월 출판계에 들어와 솔출판사에서 편집을 배웠으며, 일빛출판사에서 편집과 제작을 겸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표 작업 도서로 『열하일기(1~3)』(김철조 옮김), 『연암집(상·중·하)』(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을 읽는다』(박희병 지음),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1 회화, 2 서예)』(박희병 지음), 『열녀의 탄생』(강명관 지음), 『홍대용과 항주의 세 선비』(김명호 지음),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신영복 지음),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신영복 지음), 『노무현 전집(전7권)』(노무현 지음), 『자본론 공부』(김수행 지음), 『정본 백범일지』(도진순 교감) 등이 있다.

금상
김세원(金世元)



200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한국언론자료간행회에 입사하며 출판계에 입문했다. 이후 거름출판사, 위즈덤하우스에서 편집과 기획, 홍보, 해외도서 저작권 업무 등을 배웠고, 2012년 흐름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출판물의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과 동시에 조직관리 리더십을 배웠다. 2016년부터는 (주)도서출판길벗의 편집실장을 맡아 ‘길벗’과 ‘더퀘스트’ 브랜드로 경제경영·자기계발·인문교양 등 다양한 단행본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2024년 ‘더스퀘어’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창업, 개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콘텐츠의 책을 출판하고 있다. 2017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출판연감』에 경제경영서 시장 분석을 집필하고 있다.

7. 제2회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대상
이종백(李鍾伯)



1962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영남대학교 출판부에 입사한 후, 34년간 기획, 편집,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대학출판협회 실무위원장, 부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있다. 2018년 올해의 대학출판인상 본상, 2022년 ‘책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표 작업 도서로 『한국문화사상대계』(전4권), 『퇴계시풀이』(전9권), 『주희시 역주』(전5권), 『한국, 일본, 중국 연력대전』(전6권), 『인문학육성총서』(32종), 『바다의 왕국들』,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두 갈래 여정』을 비롯해 한국학과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학술서들을 꾸준히 펴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총서』를 기획하였고, 20대-30대 청년들의 창의력 있는 작품을 발굴하여 출판으로 지원하고자 표현의 너비(w), 안목의 높이(h), 사유의 깊이(d)라는 의미를 담은 <w.h.d> 브랜드를 설립하는 등 학술출판을 바탕으로 출판 영역을 넓혔다.

금상
조수정(趙水瀾)



1994년 청소년 독서 교양 잡지인 『월간 디딤돌』 기자로 디딤돌 출판사에 입사했다. 청소년의 문화와 독서, 시사를 폭넓게 다뤘던 이 잡지가 폐간된 뒤 같은 회사 참고서 팀으로 옮겨 중고등학교 사회·역사 참고서를 편집했다. 2001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의 중학 『사회』 교과서를 담당하여 검인정에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2009년 계간 『역사비평』 담당 편집자로 역사비평사에 입사하여 89호부터 2012년 100호까지 계간지 편집을 맡았고, 이후 단행본 팀에서 역사·인문서 편집을 계속 해오고 있다. 주요 편집 도서에는 번역서 『사통』, 『주자평전』,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 『알타』 등이 있으며, 전근대사에 『권력 이동으로 보는 한국사』,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실록이란 무엇인가』,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모후의 반역』, 『낯선 삼일운동』 등이 있고, 인문서에는 『임헌영의 유럽문학기행』, 『똥의 인문학』,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모나리자의 집은 어디인가』 등이 있다.

[26]

[27]

7. 제2회 수상자

이종백 · 조수정 · 김태희 · 장경식 · 수류산방

금상

김태희(金婉希)



1997년 9월 창작과비평사 편집자로 출판 일을 시작했다. 어린이 책과 인문교양도서를 만들다 2004년 9월 사계절출판사 아동청소년문학팀장으로 입사해 현재 총괄이사로 재직 중이다. ‘재미있다! 우리 고전’ ‘사계절 웃는 코끼리’ ‘사계절 만화가 열전’ ‘독고독락’ 시리즈를 기획·편집했다. 대표 작업 도서로 『학교에 간 개돌이』(김옥 글, 김유대 그림), 『어진이의 농장 일기』(신혜원 글·그림), 『걱정쟁이 열세 살』(최나미 글, 정문주 그림), 『나도 편식할 거야』(유은실 글, 설은영 그림), 『합★체』(박지리), 『맨홀』(박지리), 『다윈 영의 악의 기원』(박지리), 『거기, 내가 가면 안 돼요?』(이금이), 『지금은 없는 이야기』(최규석 글·그림), 『소년을 읽다』(서현숙), 『임꺽정(1~10)』(4판, 홍명희),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 1~2』(이창현 글, 유희 그림), 『단명소녀 투쟁기』(현호정), 『나의 아름다운 할머니』(심윤경) 등이 있다.

특별상

장경식(張景植)



1986년 출판에 입문, 책세상출판사에서 편집장을 지냈고, 1992년 한국브리태니커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편찬에 참여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백과사전의 편집자로 일했다. 1994년 한국어판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완간 이후, 1996~1998년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 편집장을 맡아 편찬 전 과정을 지휘했다. 1993년부터 백과사전의 디지털 버전을 기획,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D-ROM』(1999)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On-line』(1999)을 개발하는 한편, 전면개정판 『브리태니커 어린이 백과사전』(1999, 전 30권), 『브리태니커 키즈 라이브러리』(2004, 전 32권), 『브리태니커 비주얼 사이언스 백과』(2009, 전 19권), 『브리태니커 지식백과』(2022, 전 8권)을 펴내는 등, 형태와 독자가 다른 여러 백과사전을 펴냈다. 2015년 한국백과사전연구소를 설립하여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엔사이클로피디어 브리태니커사의 한국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면서 관련된 여러 백과사전의 개정과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전학회 창립회원으로 기획이사, 편집이사 등을 지내면서 사전 편찬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출판사 특별상

수류산방(Suryusanbang)

suryusanbang

2003년 말 기획, 편집, 디자인, 사진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여 만들었다. 문화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새로운 조합을 이루는 단행본을 만들어 온 출판사이기도 하다. 책을 만드는 일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여러 분야, 전시와 공간 기획 등 다양한 작업을 해 왔다. 100여 종의 상업 출판물을 냈고, 수백 가지의 디자인을 했다. 2012년 배재학당역사박물관과 한글에 대한 전시를, 2015년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올해의 건축가 조성룡 전〉, 2017년 보안여관에서 〈건축의 소멸 : 소록도전〉을 기획하는 등 몇 번의 전시 기획을 했다. 2011년에 국립예술자료원과 함께 예술사 구술 총서를 출간하기 시작해 그 해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그래픽 디자인 부문)를 수상했다. 2014년에 남촌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세상에 이런 책!〉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 동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파주 북 어워드’에서 출판 미술상을 받았으며, 이는 상이 제정된 이래 출판 미술 분야에서는 한국의 첫 수상이었다. 2015년 파주 국제 워크숍 〈동아시아 책의 교류〉에서 강의했고, 2016년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2018년 최은진의 세 번째 음반 『헌법재판소』를 발매했다. 2019년 『매일50』으로 독일 iF 디자인어워드를 수상했고,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 공모에 선정되었다.

[28]

[29]

심세중

(수류산방 대표)



홍익대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수료했다. 성균관대 디자인 대학원에서 건축 도시 디자인 과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시 기획과 편집 분야를 오가며 일하고 글 썼다. 1997년부터 실험 무크 『보고서/보고서』, 1999년부터 월간 「디자인」 에디터로 일했고, 안그라픽스를 거쳐 2003년 말에 수류산방 설립에 합류했다. 2019년 문화재위원(세계유산분과)에 임명되었고, 2020년부터 성균관대 융합대학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쓴 책으로 의재 허백력 선생을 다룬 책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건축과 풍화』(공저)가 있다.

박상일

(수류산방 방장)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의 기획 및 편집 업무로 출판계에 입문했다. 1992년부터 6년여 동안 SK그룹 발행 대학생 잡지 「지성과 패기」 편집장을 지냈고, 1996년부터 출판사 박가서장과 편집 회사 박가공장 대표로 활동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디자인하우스에 재직하면서 DES 사업 본부장과 월간지 「DOVE」 편집장을 지냈다. 2003년 말에 출판과 디자인, 전시 등 복합 문화 활동을 지향하는 수류산방을 설립, 프로듀서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북 디자이너 41인〉에 선정되었고, (프로파간다 출판사), 〈페이퍼 로드 : 지적 상상(紙的想像)의 길〉 외 디자인에 관련된 몇몇 국제전에 초대 받은 바 있다.

Adress.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101동 201호 (견지동, 대성스카이렉스)
Tel.	02-732-1434~5
Fax.	02-722-5406
E-mail.	tkpfs@daum.net
Website.	www.tkpf.or.kr

